

3명 모두 호남출신 현역의원...“새로운 야당 만들기 촉매 역할”

황주홍·문병호·유성엽 오늘 새정치 탈당 선언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이후 현역 의원의 첫 추가 탈당이 이뤄진다. 당내 비주류 대표 인사인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공식 선언한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당시 ‘안철수 몫’으로 최고위원을 지냈던 당직자들도 16일 동반 탈당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강진을 시작으로 16일 정중, 영암 및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당을 도는 땀뻑한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민심 수렴에 나섰다”며 “내일(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관에서 문병호·유성엽 의원 등과 함께 새정치연합을 떠나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도 “내일 오전에 저를 포함한 3명의 의원과 탈당을 선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새로운 야당 건설을 위해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 안철수, 전정배 의원 등과 함께하는 단일대오의 새로운 야당을 만들기 위해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야당으로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승리 가능성이 없다”며 “새로운 야당은 사사건건 정쟁의 수렁에 빠져 모든 것을 반대하거나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상대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영암 출신으로 안철수 의원의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유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 황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세 명 모두 호남 출신으로 이들의 탈당이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두고 관심이 쏠린다.

“총선 승리 가능성 없어”

첫 현역의원 탈당

호남민심 영향 줄까 관심

또 김근·오홍근·이용경·정연호·표철수 전 최고위원은 이날 탈당계를 내며 “이 나라와 이 나라 정치판과 이 나라의 야당에까지 만연한 마피아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정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말 신당 창당 과정에서 안 의원과 함께했던 ‘정치적 동지’들로,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이들은 최근 탈당한 안 의원과 함께하며 정치세력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현직 당직자들은 물론 현직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현실화되면서 연세탈당 분위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에 의원 몇 명이 추가 탈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17일에 수도권지역 총선 출마 준비자들의 탈당선언이 예정돼 있고, 지역별 당원들의 집단 탈당도 급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가) ‘당을 위해서라면 어떤 제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 한마디만 해주시길 기대했다”며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문 대표의 말씀을 못 들어 아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고 이만섭 전 국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해 잠겨 있다. 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혁신과 인적 쇄신을 통한 공천혁명 의지를 천명했다. /연합뉴스

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이 국민을 위해서 보다 혁신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며 “제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그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 침몰해가는데 가만 있으라고... 의원들 입 묶는 것이 수습책이냐”

혁신 드라이브 당 기강잡기 문재인 대표 수습 카드 광주·전남 의원들 부글부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탈당 수습책으로 혁신 드라이브와 당 내 기강잡기 카드를 제시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 대표의 수습책은 “현재의 지도부가 퇴진하고 통합 비대위나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호남권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 14일 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문 대표가 급적 이력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

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문 대표가 이날 당내 비주류 진영을 겨냥 “혁신을 공천권 다름이나 당 내 권력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당내 투쟁을 야기해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광주의 모 의원은 “당이 침몰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있어라’라는 말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문 대표의 수습책은 호남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광주 의원은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절이 문 대표 것인가?”라고 밝혔다.

전남의 모 의원은 “지도부를 비판하면 책임을 묻겠다는데 무서워서 어디 말을 붙이겠느냐”며 “의원들의 입을 묶는 것

이 민주적 지도부냐?”라고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범주류로 분류되는 전남지역 의원도 “문 대표의 이날 발언은 신중치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뭐라 입장을 밝히기가 그렇다”, “기사에 이름이 나가면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여 문 대표의 강경 입장에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나타냈다.

최근 당직 사퇴를 검토했던 일부 의원들도 “없던 일”로 하는 분위기다. 괜히 뒤늦게 당직을 던졌다가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의 모 의원은 “지금 탈당하면 쟁쟁한 출마”는 입장과 함께 “뒤늦게 당직을 던지기가 그렇지 않느냐”며 딱딱한 반응을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민 깊어가는 밤”...강골 박지원 의원 입원

타고난 강골로 알려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병원에 입원했다. 야권 분열 정국에서 계속된 스트레스와 지역구 일정 강행, 감기 몸살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전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 흔들리는 호남 민심과 당심을 추슬러 내년 총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문 대표 등 당내 주류 진영이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안철수 의원마저 탈당의 길을 선택, 야권 분열이 가시화되자

박 전 원내대표는 상당히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역 민심과 지지자들, 신당 추진 세력에서의 계속되는 탈당 요구도 박 전 원내대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호남 정치권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상징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는 당내 주류 진영과 각을 세우면서도 통합에 방점을 두는 신중한 행보를 보여 왔다. 이를 반영하듯,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안철수 의원 탈당 직후, 트위터에 “제1야당의 운명이 풍전등화다. 모든 것을 원점부터 다시 고민하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저의 거취

에 대해서 묻습니다만 고민이 깊어가는 밤”이라고 짧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전 원내대표는 2년에 한 차례씩 하는 정기검진 외에는 병원을 찾지 않는 강철 체력”이라며 “최근의 야권 분열 정국에 대한 고민과 지역구에서 하루 20~30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과로 등이 겹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17일 퇴원 예정인 박 전 원내대표의 행보에 따라 안철수 의원 탈당 정국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에 대해서 묻습니다만 고민이 깊어가는 밤”이라고 짧게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 측 관계자는 “박 전 원내대표는 2년에 한 차례씩 하는 정기검진 외에는 병원을 찾지 않는 강철 체력”이라며 “최근의 야권 분열 정국에 대한 고민과 지역구에서 하루 20~30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과로 등이 겹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광주 전시장: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ES 300h(4기통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16.4km/ℓ(도시상연비: 16.1km/ℓ, 고속도로연비: 16.7km/ℓ), 복합CO₂ 배출량: 103g/km, 등급: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빙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LEXUS AMAZING IN MOTION